

소상인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전주시, 매출증대·자생력 강화 위해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도

전주시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로 했다.

시는 전주지역 소상공인 30개 내외의 업체를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경기침체 및 업체 간 경쟁심화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매출증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환경 개선과 매출증대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 창업희망 업종·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컨설팅은 하루 3~4시간, 최대 2일 동안 실시되며,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타당성분석 △경영진단 및 영업 마케팅 △고객서비스교육 △인력관리 △업종전환 △매장환경개선 등 분야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종 전환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예비 청년창업자 등으로,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

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메일, 팩스) 신청하면 되고, 시는 예비진단을 통해 지원적절성과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해 줄 예정이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이 사업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난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소상공인이 스스로 힘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유치원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 지원

도교육청, 14개 지원청에 이달 중 2500만원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놀이중심·유아중심의 유아교육을 펼치기 위해 14개 교육지원청에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5월 중에 총 2,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유아는 하루 일과 중 매일 접하는 물적·인적 환경과의 충분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격적 성숙, 지적 호기심을 채워간다. 이러한 물적·인적자원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이 교육과정 속에 녹아지도록 교육활동을 운영할 때 비로소 유아는 환경과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며 성장하게 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마다 특성에 따라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활동,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교원들의 역량강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기동취재반



'커피 하루 장터가 열리는 날'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꿈엔들 카페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청원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판매한다. 김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로직업 프로그램인 바리스타 자격증반이 운영되고 있다. 바리스타 자격증반 5명의 수강생은 연말에 있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자신들의 꿈과 기량을 이곳에서 펼치고 있다.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꿈엔들 카페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청원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판매한다. 김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로직업 프로그램인 바리스타 자격증반이 운영되고 있다. 바리스타 자격증반 5명의 수강생은 연말에 있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자신들의 꿈과 기량을 이곳에서 펼치고 있다.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꿈엔들 카페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청원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판매한다. 김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로직업 프로그램인 바리스타 자격증반이 운영되고 있다. 바리스타 자격증반 5명의 수강생은 연말에 있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자신들의 꿈과 기량을 이곳에서 펼치고 있다.

도교육청, 내일부터 2019학년도 서울대·사관학교 입시설명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7일 실시된 2018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1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초졸은 86명이 응시하여 66명, 중졸은 251명이 응시 161명, 고졸은 844명이 응시 476명이 합격하였다.

합격증서는 한 달간 도교육청 1층 고객지원실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수령할 수 있다. /기동취재반

전북도교육청은 12일 오후 2시부터 전북교육문화회관 1층 공연장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법에 대한 설명회 및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13일에는 육, 해, 공사관학교 및 국군 간호사관학교 등 특수대학의 입시설명회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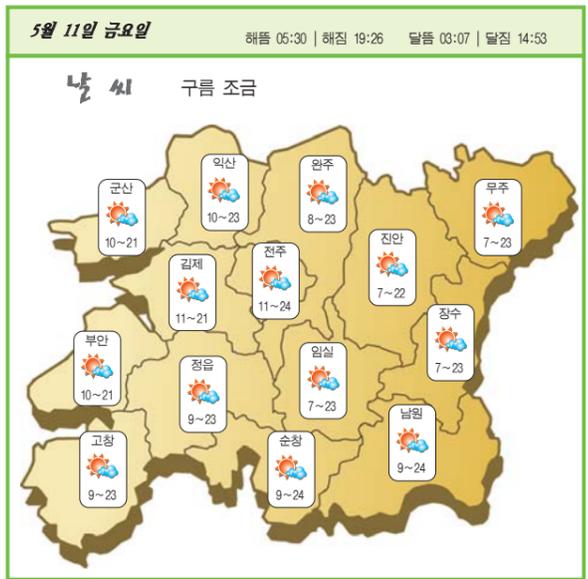
최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및 수능 위주 정시모집 선발 비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가운데 5월 1일 발표된 '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현 고2)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404명 증가한

85,168명으로 선발비율(24.5%)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2일 설명회에서는 많은 학생, 학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준비 방법 등에 대해 전년도 합격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전년도 도내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길잡이 및 합격사례 모음집을 현장에서 보급하여 학생, 학부모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해 입학사정관의 설명을 통해 지역균형선발 및 기회균형, 일반전형의 특징 및 지원 자격과 지원자가 준비할 자기소개서 작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13일에는 특수대학(육, 해, 공군 사관학교 및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관심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입시설명회가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기동취재반



전주국제영화제 부문별 시상식 한국경쟁 '성혜의 나라' 국제경쟁에 '상속녀' 단편경쟁 '동아' 선정

CGV아트하우스 지원상 비경쟁부문 시상도 진행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시상식을 열고 부문별 총 12개 작품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10일 영화제 조직위에 따르면 국제 경쟁 부문에서는 마르셀로 마르티네시 감독의 영화 '상속녀'가, 한국경쟁 부문에서는 정형석 감독의 '성혜의 나라'가 선정됐다.

한국단편경쟁 부문의 경우 총 21편의 본선작 중 권예지 감독의 영화 '동아'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단은 "'상속녀'는 남겨진 자, 여성, 차별이라는 주제를 개인적인 경험으로 섬세하게 풀어냈으며, 단단한 구조와 도전적인 실험정신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성혜의 나라'는 주인공이 겪는 참담한 일상을 침착하게 그려

냈다"며 "'동아'도 다양한 시각과 시도가 신선했고, 치열한 고민이 묻어났다"고 설명했다.

CGV아트하우스 배급지원상'은 조성민 감독의 영화 '비행'이, CGV아트하우스 창작지원상'은 20대 청년의 꿈과 사랑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영화 '내가 사는 세상'이 각각 수상했다.

국제경쟁 부문 작품상은 '머나먼 행성'이, 한국단편경쟁 부문 감독상은 '환불'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이날 시상식에서는 비경쟁부문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아시아시네마스케이프 상영작 중 한 편을 선정해 시상하는 '넷팩상'에는 김인선 감독의 영화 '어른도감'이 선정됐다.

한편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12일 폐막작 '개들의 섬' 상영을 끝으로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